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김 동 건

탁월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철학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안목으로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여 인류의 자주위업과 로동계급의 사상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은 주체철학의 과학성과 진리성, 독창성과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체철학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 철학리론들을 분석판단함으로써 주체철학에 사소한 이색적인 철학사조도 끼여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8권 417페이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철학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등 여러 로작들에서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명확히 밝혀주심으로써 시대가 제기한 중대한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체철학의 독창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여 주체철학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시였다.

주체철학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주체철학이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라는것을 천명하신것이다.

한때 일부 사회과학자들속에서는 주체철학을 맑스주의철학의 단순한 계승발전으로 보면서 주체철학의 기본원리들을 유물변증법의 틀에 맞추어 해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편향은 주체철학을 놓고 《주체의 변증법》, 《주체의 유물론》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철학의 기본원리들을 해설하는데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는데로 지향시키지 못하고 물질세계의 일반적합법칙성의 견지에서 해석하려 한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이런 사람들은 주체철학의 원리들을 혁명실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탐구하지 않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히는데 별로 의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공리공담을 일삼고있었다.

한편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주체철학을 인간철학과 동일시하면서 주체철학의 고유한 원리와 내용들을 비속화하려는 현상도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철학에 대한 연구와 해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편향들을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주체철학의 순결성을 고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시였다.

주체철학의 기본원리들을 유물변증법의 틀거리안에서 해석한다는것은 주체철학과 맑스주의철학의 기본체계와 내용을 혼탕시키고 그 관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것이며 주체철학과 인간철학을 동일시한다는것은 주체철학의 혁명성과 인민성, 과학성을 부인하고 이색적인 부르조아사조의 침습을 허용한다는것이다.

이러한 편향이 요소적이라도 묵인조장되면 주체철학의 고유한 성격이 흐려지게 되고 나아가서 당과 혁명의 운명이 위태롭

게 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체철학이 맑스주의철학을 계승발전시킨 철학인가 아니면 새로운 철학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철학의 과학성과 혁명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선행리론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는 과정에 주체철학은 맑스주의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철학이라는 결론을 내리시였으며 이로부터 주체철학의 고유한 특성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맑스주의철학은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물질의 일차성, 존재의 일차성을 론증한데 기초하여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고 물질의 운동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는것을 밝혔다. 이와는 달리 주체철학은 자기의 고유한 원리들로 전개되고 체계화된 독창적인 철학이다. 주체철학은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문제,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천명함으로써 인간의 운명개척의 정확한 길을 밝혔다.

맑스주의철학이 물질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히는것을 중요한 철학적과제로 내세웠다면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히는것을 중요한 철학적과제로 내세웠다.

주체철학은 그 철학적과제와 원리들이 선행철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독창적인 철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철학은 인간철학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라는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원래 인간철학은 발생한지도 오래고 또 여러가지 류파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순수 인간문제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인간철학

은 주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론하는 하나의 인생철학이다.

주체철학의 근본문제는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문제이며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단순히 인생관을 밝힌 원리가 아니라 세계관을 밝힌 원리이다. 만일 주체철학의 근본문제를 순수 인간문제로 본다면 주체철학을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에 부합되지 않게 세계와 동떨어진 인간의 본능이나 론하는 철학으로 보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주체철학이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주체철학의 기본원리들을 유물변증법의 원리에 해소시키거나 주체철학과 인간철학을 같은것으로 보는 그릇된 경향들을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주체철학의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여 주체철학을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철학으로 빛내이시였다.

주체철학의 심오한 진리를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로운 시대의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줄수 있는 혁명철학은 주체철학이라는것을 확신하시였으며 주체철학을 자주시대의 혁명철학으로 빛내이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주체철학을 자주시대의 혁명철학으로 빛내이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주체철학이 그 어느 고전에도 비기지 못할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고 인류와 더불어 영원할 혁명학설이라는것을 천명하신 것이다.

시대의 발전은 철학의 발전을 동반한다. 오늘의 시대는 인류력사발전의 새로운 시

대, 자주의 시대이다. 오늘의 시대에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과 립장에서 새로운 방법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옳바른 철학, 혁명의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

지난 시기에는 맑스-레닌주의가 시대적인 사상으로 되어왔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나가던 시기에 나온 혁명학설로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는데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되고 력사는 발전하는것만큼 맑스-레닌주의도 력사적제한성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실제적으로 맑스-레닌주의의 력사적제한성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적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맑스주의와 레닌주의가 나온 시대적조건과 리론적출발점, 그것들이 제기하였던 력사적과제들에는 관계없이 맑스-레닌주의를 모든 나라, 모든 혁명단계에 다 적용되는 만능의 처방으로, 절대적인 공리로 간주하고있었다.

한편 국제혁명운동안에 대두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정세의 변화》와 《창조적발전》의 미명아래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거세하면서 수정주의를 대대적으로 류포시키였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맑스-레닌주의의 력사적공적과 지위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시는것과 함께 그의 시대적, 력사적제한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맑스-레닌주의로써는 오늘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

인 해답을 줄수 없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철학을 연구분석하시고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총화하는 과정에 내리신 결론은 조선혁명이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 자주의 길을 개척해왔으며 자주야말로 조선혁명의 진수라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철학을 연구 분석하시는 나날에 오늘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이끌어줄 위대한 사상은 주체철학밖에 없다는것을 더욱 굳히시였다.

이것은 주체철학이 단순히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가장 높은 지위가 아니라 인류의 철학사상발전에서 이룩한 모든 재부들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인류사적인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다는것이다.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사상으로서의 주체철학의 력사적지위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로서 자주시대 인류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불멸의 철학사상이라는것이다.

시대변화의 필연적과정과 사상발전의 합법칙성,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대한 천리혜안의 포착, 선행한 혁명사상사의 전면적총화 등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철학적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이 밝혀지고 그것이 자주시대를 향도하는 혁명철학으로 증명된것은 인류의 운명개척과 사회주의의 발전, 철학사상발전에서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우리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